



『 상반기 결산 : 日 최신 한류 동향 』

○ 작성 취지

- 후지TV가 '한류a'를 새롭게 편성하는 등 전국 네트워크의 지상파 민간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노출기회 확대
- ·이를 통해, 액션 멜로드라마의 **프라임타임 진출, 뉴미디어 진출확대** 등으로 젊은층의 한류시장 유입가능성 높음
- ·하지만, 급격하게 DVD 판매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수익성은 악화
- K-POP은 동방신기 해체이후 멤버의 솔로활동, 빅뱅이 견인하고 있는 구조임
- · 한국 걸 그룹 일본 상륙에 대해 일본 음악업계는 호의적인 전망
- 한국 탤런트뿐만 아니라 K-POP의 저변확대로 관련 이벤트 성황

○ 작성 순서

- 1. 「**상반기 주요** <u>장르별 한류 동향</u>」 🖙 방송, 영화, 음악, 이벤트 동향
- 2. 「시사점」

1. 『 상반기 주요 장르별 한류 동향 』

□ 「방송 동향」

- 한국드라마의 경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전국네트워크의 **지상파** 민간방송으로의 노출기회는 확대
- <u>후지TV</u>는 이전 '한류 아워'라는 한국 드라마 시간대를 운영했으나 시청률 부진으로 중단한 바 있었으나, 새로이 올 1월부터 '<u>한류a</u>'라는 브랜드로 한국 드라마 시간대를 설치하여 평일 매일 한국 드라마 방송 중
 - ☞ 한류α: 매주 월~금 오후 2시 7분부터 방송 (wwwz.fujitv.co.jp/hanryu/index.html)
- <u>TBS</u>는 지상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프라임 타임대**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를 편성, 화제가 되었음
- <u>TV도쿄</u>는 낮 시간대에 '<u>한(韓)드라엔터</u>'라는 브랜드로 한국 드라마를 정기 편성 방송중이며, 지난 4월 15일부터 '**주몽**'을 방송 중에 있음
 - ☞ 한(韓)드라엔터: 매주 목·금 오후 12시 35분부터 방송 (www.tv-tokyo.co.jo/kandoraenter)

≪NHK BS2≫

- 2009년 8월 2일부터 에서 '**이산**' 방송시작 (www9.nhk.or.jp/kaigai/isan/)
 - 총 49회 1년 가까운 편성으로 2010년 7월 25일 종영예정임
 - **중년 남성 충**을 중심으로 인기 상승 중
 - 위성방송인 BS시청률로는 매우 드물게 최고시청률 4.6% 기록

≪ **후** 지 T V (한 튜 α) ≫

- 후지TV, 한류드라마 시간대 '한류a' 신설 (wwwz.fujitv.co.jp/hanryu/index.html)
 - 금년 1월부터 월요일~금요일 띠 편성으로 오후 2시 7분부터 방송
 - '내 이름은 김삼순', '태양의 여자', '화려한 유산', '뉴하트',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환상의 커플'을 방송했고 현재 '**달자의 봄**'을 방송 중
 - 9월 중순까지 '내 이름은 김삼순', '부활', '커피프린스 1호점', '미남이 시네요', '궁'을 집중 방송할 예정
 - 「☞ '한류α' 편성 이후, '내 이름은 김삼순', '태양의 여자', '위대한 유산' 등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 특히 오후 2시대의 평균 시청률은 4~5% 수준인데 '위대한 유산'은 이례적으로 높은 9.7%(최고 시청률)의 시청률을 기록했음



<위대한 유산>의 인기요인

-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교훈적이며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전한 드라마인점에 호응. 특히 일본이 잃어버린 정신적 가치가 매력적으로 재현되고 있고 기존의 멜로 중심의 애정으로 얽히고 설킨 한류 드라마와는 다른 유형이었다는 점에서 신선감을 느낌
- 이승기, 한효주가 일본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외모와 스타일**을 겸비하고 있어 젊은층의 시청을 유도하고 있는 점도 특징
 - ※일본인 시청자의 심층면접 조사결과

\ll TBS \gg

- TBS는 매주 수요일 프라임 타임대인 오후 9시에 '아이리스'를 방송 중
 -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했으나 '아이리스'의 시청률은 예상 이하
 - 첫 회는 10.1%로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현재는 <u>6%대</u>로 하락하고 있음
 - 부진이유는 더빙실패, 광고로 인한 지나친 화면삭제, 복잡한 스토리, 한국 방송분 시청자 존재 등으로 분석
 - 그럼에도 유료방송인 'TBS채널'에서는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국네트워크의 성과는 기대이하이지만, 새롭게 **남성 충**이 한류드라마 시청에 가세함으로써 향후 한류드라마의 **저변은 확대될 가능성**은 높음 ☞ 아이리스 : 매주 수요일 오후 9시부터 방송 (www.tbs.co.jp/iris2010)

<아이리스의 시청률>

회수	방송일	시청률
1	2010년 4월 21일	10.1%
2	2010년 4월 28일	8.8%
3	2010년 5월 5일	7.5%
4	2010년 5월 12일	7.9%
5	2010년 5월 19일	7.4%
6	2010년 5월 26일	7.9%
7	2010년 6월 2일	6.2%
8	2010년 6월 9일	6.3%
9	2010년 6월 23일	6.3%

※출처: 관동지구 비디오리서치 조사

□ 「기타 매체 동향」

- 한편, 방송과 달리 한국 드라마 최대시장인 <u>DVD 판매에선 수익이</u> **악화**되고 있음
 - 특히 수천 단위 규모의 DVD 판매시장은 현재 수백 단위로 축소.
 - 그러나 DVD 대여시장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한국드라마 대여는 순조로운 편임
- 모바일TV 및 IPTV 등 뉴미디어에서 한류드라마의 노출기회 확대
 - CS위성, CATV뿐만 아니라, NTT계열 IPTV인 히카리TV에서 한국어전문 채널인 KBS월드, KNTV가 채널단위로 전송되고 있고 '풀하우스'와 '겨울연가' 등이 VOD서비스중임
 - 휴대폰 전용 멀티미디어 방송인 <u>BeeTV</u>에서 소지섭의 'I am GHOST, 현빈 '친구', 김준과 김재욱이 출연한 '피그말리온의 사랑'이 방송되었고, 동방신기 출신 믹키유천의 'Beautiful Love~너가 있다면'이 6월초부터 방송 중
 - <u>TV도쿄</u>는 자체 휴대폰전용 **원세그(일본 DMB)**방송에서만 '차세대 한류 스타를 찾아라'라는 특별프로그램을 방송한 바 있음.
- 동방신기출신 **영웅재중**이 후지TV의 목요 드라마 **'솔직해지지 못해'**에 주연급으로 출연해 화제가 되었음
- '아이리스'의 프라임타임 진입으로 젊은 남성충과, 한류스타 및 드라마의 뉴미디어 노출기회 확대로 일본 젊은층의 한류드라마시장 진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영화 동향」

- 2000년 중반이후 **한국영화의 일본 내 흥행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일본 내에서 한국영화의 흥행비즈니스는 최대시장인 '극장수입'보다 방송과 뉴미디어, 대여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일본시장 진출이 부진한 이유

- 할리우드 영화의 극장흥행을 능가하는 <u>일본영화의 선전</u>
 ※일본영화 흥행수입 56.9%(1,173억엔), 할리우드 영화 흥행수입 43.1%(887억엔)
- 제작 및 유통과 **배급의 수직구조화** ※주요 배급사인 도호, 워너브라더스, 도에이, 쇼치쿠 등이 극장운영에도 참가
 - 대신 **한국인 감독에 의한 일본영화작품의 감독**이 눈에 띠고 있음.
 - '내 머리 속의 지우개'로 유명한 이재한 감독이 일본의 정상급 여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출연한 '사요나라 이츠카(안녕, 언젠가:サョナライツカ)' (2010년 개봉)를 연출해 **홍행 면에서도 성공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화산고'로 유명한 김태균 감독도 인기 호러만화의 실사영화 '피안도 (彼岸島)'를 연출, 인기를 얻었음
 - ※ 2008년도에는 '엽기적인 그녀'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로 유명한 곽재용 감독이 '싸이보그 그녀(僕の彼女はサイボーグ)'를 연출



□ 「음악 동향」

- 동방신기의 앨범발매와 해체이후 **솔로활동**, 한국 **걸 그룹** 상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음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임
- 동방신기는 **싱글, 앨범, DVD랭킹에서도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음.
 - 상반기 오리콘 싱글 랭킹에서는 **6위와 12위**에 랭크되었고 솔로로 나선 시아준수가 13위에 랭크인
 - ※ 시아준수의 Intoxication의 싱글판이 217,766장 판매
 - 앨범(타이틀 Best Selection)랭킹에서는 54만7천장을 기록해 3위 랭크
 - 뮤직DVD 판매액에서는 동방신기 관련 DVD가 4위, 19위, 24위, 29위, 38위에 랭크되어 있음
 - ※ 빅뱅이 30위(30,043장)와 44위(20,693장)에 랭크
 - 2009년 7월 이틀간의 도쿄돔 공연에서는 상품 매출만 무려 10억 엔 돌파

<동방신기>의 일본내 평가

- 동방신기 노래 3분의 1이 발라드, 싱글보다 앨범판매가 더 많아 '아티스트형' 그룹으로 인정
- 가창력(동방신기는 아이돌형 가수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카펠라코러스형** 그룹으로 출발)
- 이와 더불어 댄스, 룩스 등 인기요소를 골고루 갖추었음
- 일본풍으로 **현지화**해 성공했다는 평가 ※닛케이 엔터테인먼트, 각종 음악 관련기사를 토대로 종합 정리한 내용임

<동방신기의 음반판매실적>

순위	장르	타이틀	실적
6위	싱글	BREAK OUT!	289,412장
12위	싱글	도키요 도메떼	224,218장
3위	앨범	Best Selection	547,180장
4위	뮤직DVD	TOHOSHINKI VIDEO CLIP COLLECTION-THE ONE-	161,215장
19위	뮤직DVD	4TH LIVE TOUR 2009~The Secret Code~Final in TOKYO DOME	45,532장
24위	뮤직DVD	2th LIVE TOUR~ Five in the Black	32,612장
29위	뮤직DVD	3th LIVE TOUR 2008	30,883장
38위	뮤직DVD	HISTORY in JAPAN	24,770장
45위	뮤직DVD	1st LIVE TOUR 2006	20,690장

- ※ 출처: 오리콘, 주) 분야별로 오리콘 차트에 랭크된 50위 이내에서 정리
- '포미닛(4Minutes)'이 지난 5월 데뷔, '카라(Kara)'와 '소녀시대'가 여름에 일본에서 라이브 개최예정으로 한국 걸 그룹의 일본상륙이 두드러지고 있음
 - 한국 걸 그룹의 음악성 높이 평가, 과제는 <u>일본어와 적절한 프로모션,</u> 발라드 강화필요(NHK 이시하라 프로듀서)
 - 노래와 댄스에 손색이 없고 **매력적이며 계속적인 노출**이 과제(HMV 재팬 K-POP진흥팀)
 - ※ 출처:http://www.oricon.co.jp/music/special/2010/kpop_girls0623/index4.html#close



□ 「이벤트 동향」

- 작년 이후 거의 **매주 한류관련 콘서트나 팬 미팅** 등이 개최되고 있을 정도로 **공연시장은 확대**되고 있음
 -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음반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분야 로서 공연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이 시장은 디지털음원 서비스와

더불어 시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입장가격은 유명 연예인급 수준의 입장요금이 책정되어있으며, 1만엔을 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도 있음
 - ※ 2009년 9월 개최된 '애니메이션 겨울연가' 공개기념 이벤트는 전석 입장료 8,925엔이었음

<2010년 상반기 주요 콘서트 및 이벤트 개최 현황>

개최연월	구분	주요 연예인(이벤트) 및 개최 장소	
2010년 1월	콘서트	'비' / 장소: 오사카성 홀	
2010년 2월	이벤트	'권상우' / 장소:도쿄 국제포럼	
	이벤트	'공유' / 장소:파시피코 요코하마	
2010년 3월	콘서트	'신승훈' / 장소: 도쿄국제포럼	
2010년 4월	이벤트	'준호' / 장소: JCB Hall	
	이벤트	'한류스타·가라 콘서트' / 장소: 도쿄 국제포럼	
	이벤트	'New Generation Live in YOKOHAMA' / 장소: 파시피코 요코하마	
	이벤트	'꽃보다 남자 이벤트' / 장소: 파시피코 요코하마	
	이벤트	'김범' / 장소: 파시피코 요코하마	
	이벤트	'이준기' / 장소: 요코하마 아리나	
	이벤트	'현빈' / 장소: 요코하마 아리나	
	콘서트	'비' / 장소: 도쿄 요요기경기장	
2010년 6월	이벤트	'드라마 tick·라이브 스테이지 'IRIS' / 장소: 사이타마 아레나	
	이벤트	'초신성/SG워너비' / 장소: 파시피코 요코하마	
	콘서트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 장소: 교세라 돔 오사카	
	콘서트	'신혜성' / 장소: 도쿄국제포럼	
	콘서트	'류시원' / 장소: 도쿄국제포럼	

※ 출처: CJ미디어재팬제공

2. 『시사점』

- 후지TV가 '한류a'를 새롭게 편성하는 등 전국네트워크의 지상파민간방 송에서의 <u>노출기회는 확대</u>. 전국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한류드라마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로 **신규수요 창출 가능성 높음**
- 액션 멜로드라마(아이리스)의 프라임타임 진출, 뉴미디어 진출확대 등으로 지금까지 한류드라마를 접하지 않았던 젊은층의 한류시장 유입 가능성 높음
 - 다만 급격하게 DVD 셀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수익성은 악화
- 한류 음악시장은 동방신기 및 해체이후 멤버의 솔로활동, 빅뱅이 견인하고 있는 구조임. 하반기에는 동방신기 멤버의 일본 활동 본격화, 한국 걸 그룹 데뷔 등으로 음악한류의 저변은 확대될 전망